

“맥쿼리와 뒷돈거래 의혹 행정조사권 발동하라”

심철의 광주시의원 주장

“2순환도로 보조금 협상 맥쿼리에 유리하게 한 관련자 법적 처벌해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부적절한 돈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원이 행정조사권 발동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심철의(서구1) 의원은 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뒷돈 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 과정에서 맥쿼리 측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주는 대가로 뒷돈을 오간 의혹이 불거져 어처구니가 없다”며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주무관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6년 사업재구조화 협상 당시 광주시청 실무 부서 간부 공무원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운영현 광주시장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핵심 관계자가 맥쿼리 측 대리인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민자사업자 측이 유리하도록 협상 분위기를 이끌고 이 과정에 민자사업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2256억원을 최소 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지원했지만 지난해 민간사업자인 맥쿼리 측과 합의에 이를 패지했고 이 과정에 뒷돈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시민혈세를 낭비한 재구조화 사업의 원흉인 맥쿼리의 불법적 운영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공익 처분과 함께 행정조사권 발동이 필요하다”며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자치21도 앞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조건 변경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 영변 핵 가동 중단·ICBM 개발 중단 관측



정의용·서훈 방미 “김정은, 비핵화·북미회담 의지 분명히 밝혀”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미국으로 떠나면서 북미대화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 측에 제안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석특사인 정 실장은 지난 6일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북미회담에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하면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이 미국에 전달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미 회담에 임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자세, 또는 비핵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북측의 워딩(발언)을 중심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 이상의 생생한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각종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영변 핵 시설 가동 중단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에 대해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단계까지 와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

은 열어졌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또는 영변 핵시설 가동 중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등이 될 것이라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제안 내용을 아는 사람은 대북 특사단 5명과 문 대통령뿐”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에서 직접 그 메시지를 들은 5명과 이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 외에는 정부 내부에서도 쿠비리에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쿠비리에 취급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비중 있는 제안 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즉, 최근 미국이 언급한 ‘CO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에 대해 북한이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간 선거 등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제안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정은, 김여정 대미특사 파견 검토”

홍콩 언론 보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사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미국에 북핵 관련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이명을 요구한 한국 외교소식통은 SCMP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나 여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김여정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전할 메시지가 있으며, 이 메시지의 내용은 파격적이고, 매우 특이하다”면서 “미국이 이를 대중에게 발표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 “정 실장은 미국에 북미회담을 위한 북한의 조건을 전달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그의 동생을 한국에 보냈던 것처럼 미국에도 보낼 의향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김여정은 현재 북한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덧붙였다.

존 바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쇼아시아’ 주최 행사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미국 측이 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오천개발 010-6838-1230

공직 적응 ‘아는 선배’ 의지 되네 전남도 신규 임용·전입 직원 멘토링 첫 발

“직장생활이 처음으로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웠는데, 멘토인 ‘아는 선배’에게 조직생활과 업무에 대해 상담하고 의지할 수 있어 직장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1월 임용된 전남도 자치행정과 김정은 주무관은 직장생활 적응하는데 ‘아는 선배’가 크게 의지한다고 했다.

‘아는 선배’는 신규 임용·전입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선후배 공무원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멘토링 제도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수리채에서 ‘아는 선배’ 첫 만남 행사를 가졌다.

이날 만남은 지난 2월 공모해 선정된 ‘아는 선배’ 멘토와 멘티 각 10명씩 모두 20명이 참석해 멘토-멘티의 다짐, 멘토링 실천 서약, 성공적 멘토링을 위한 초청 강의, 소풍 점심, 커피 산책 등 화합과 교류의 시간이었다.

멘토-멘티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대1 멘토링’을 통해 인간관계 형성 및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 노하우를 전수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고재영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아는 선배’가 공직과 도정에 첫 발을 내딛는 공무원에게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심어주고 직무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멘토링 활동으로 선후배 공무원 간 소통과 공감함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활동 결과를 통해 우수 멘토링을 선정·시상하고, 최우수 멘토에게는 해외연수 기회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아는 선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부동산 특사경 3명 지명

〈특별사법경찰〉

21명까지 추가 지명할 듯 이달말부터 강력 단속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8일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6일 부동산 분야 특사경 3명을 지명했으며, 이달 안으로 5개 자치구 21명의 특사경 지명 신청 및 절차가 완료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과거 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무자격 부동산중개행위, 허위 매물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사경 도입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특사경은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보전, 사건 송치, 증거 확보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조사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수사권한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사경 도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6기)	광주교육대학교(17기)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18. 3. 6.(월) 09:10 (총4주) 토요일 오전반: 2018. 3. 10.(토) 09:10 (총4주)	월요일 오전반: 2018. 3. 5.(월) 09:10 (총4주) 금요일 오전반: 2018. 3. 9.(금) 09:10 (총4주) 토요일 오후반: 2018. 3. 10.(토) 14:10 (총4주)
모집기간	2018. 2. 1(목)~3. 10.(토)	2018. 2. 1(목)~3. 10.(토)
수업기간	2018. 3. 6.(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3. 5.(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문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www.always.kwu.ac.kr http://www.gnue.ac.kr

서양새마을금고 광고 제2018-2호

부동산매각입찰공고

1. 입찰물건 목록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 (요양병원)
- 대지 : 522.3㎡
- 건물: 총8층 2,073.86㎡ 중 5층바다
공사중지 상태
최저 예정가격 : 금 일십일억팔천일백삼십만원
(₩ 1,181,300,000)

2. 입찰 일시 : 2018. 03. 13. (10 : 00 ~ 11 : 20)

3. 기타사항
- 건축사무소 롤 설계비, 감리비 미지급금 존재하여
낙찰자 인수가능성 존재
- 공사제계시 안전점검비 부담 가능성 존재
- 기타 공사비 청구 가능성 존재

참고사항 : 1. 시공사 및 하청업체 유치권포기각서
인증 완료.
2. 시공사 상대 공사대금 광주고등법원
2016나 16275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 57326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승소 종결.

본 공고문의 전문 및 첨부문서 등은 서양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cafe.daum.net/seoyang)에서 확인.

문의 010-7659-8900

서양새마을금고

(제30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 산 총 계	116,291,636,86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6,291,636,867
1. 유 동 자 산	23,390,701,965	1. 유 동 부 채	24,122,662,706
(1) 당 과 자 산	21,603,168,661	1. 매 입 채 무	4,283,403,74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188,200,015	2. 미 지 급 금	373,333,919
2. 단기금융상품	2,850,000,000	3. 단 기 차 입 금	11,740,000,000
3. 매출채권	11,940,708,911	4. 예 수 입 금	158,621,656
4. 미 수 수 익	655,620,296	5. 미 지 급 배 당 금	1,438,844,272
5. 선 배 대 리 청	55,192,389	6. 미 지 급 배 당 금	14,085,900
6. 미 수 수 익	11,900,784	7. 선 수 수 익	282,744,362
7. 선 금 비 용	400,490,546	8. 유 동 장 기 차 입 금	2,423,455,000
8. 기 타 의 당 과 자 산	491,723,676	9. 유 동 장 기 차 입 금	3,859,303,462
9. 유 역 차 이	7,549,691	10. 한 계 가 치 할 인 차 금	692,779,809
10. 이 연 법 인 세 자 산	2,482,373	11. 임 대 부 종 금	472,750,000
(2) 계 과 자 산	1,787,533,304	II. 비 유 동 부 채	43,673,100,737
1. 처 장 자 산	1,787,533,304	1. 장 기 차 입 금	21,832,800,000
II. 비 유 동 자 산	92,900,934,902	현 계 가 치 할 인 차 금	625,500,806
(1) 부 가 자 산	2,307,753,912	2. 장 기 미 지 급 금	24,598,504,083
1. 장 기 금 융 상 품	53,000,000	현 계 가 치 할 인 차 금	62,743,471,373
2. 매 도 가 능 출 권 권	2,254,753,912	3. 회 계 가 치 할 인 차 금	2,184,981,888
(2) 유 형 자 산	86,511,273,676	회 계 가 치 할 인 차 금	67,795,783,443
1. 토 지	1,386,085,205	부 채 총 계	67,795,783,443
건 물	3,085,514,475	자 본 총 계	48,495,873,424
2.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732,226,282	I. 자 본 본 금	5,200,000,000
선	147,638,713,203	1. 보 통 주 자 본 금	5,200,000,000
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72,463,659,379	II. 자 본 잉 여 금	1,089,260,269
카 세 트 콘 테 이 너	21,297,051,714	1. 기 타 자 본 잉 여 금	1,089,260,269
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2,297,046,710	II. 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1,009,357,465
차 량 운 반 구	160,910,778	1. 매 도 가 능 출 권 권 가 이 익	1,009,357,465
5.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35,672,189	2. 매 도 가 능 출 권 권 가 이 익	0
공 기 구 비 용	610,079,280	3. 미 분 배 주 자 본 잉 동	0
6.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02,656,674	III. 이 익 잉 여 금	41,197,255,680
중 량 물 운 송 장 비	4,848,369,925	1. 법 정 공 적 금	1,522,000,000
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848,369,925	2. 임 의 공 적 금	39,457,680,562
하 역 장 비	12,972,072,343	3. 미 분 배 이 익 잉 여 금	217,575,128
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417,893,079	IV. 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0
(3)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081,907,314	1. 법 정 공 적 금	0
1. 보 통 중 금	2,132,018,208	2. 임 의 공 적 금	0
2. 이 연 법 인 세 자 산	1,949,889,106	3. 미 분 배 이 익 잉 여 금	0